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4-26】

2014. 12. 2.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위안화 국제화의 성과 및 전망	4
III.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 현황 및 시사점	7

작 성: 책임조사역 임영석 (6255-5704)
yslim@koreaexim.go.kr

확 인: 팀 장 김영석 (6255-5707)
claudio@koreaexim.go.kr



■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의 역외 위안화 허브 육성이 본격 추진되면서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배경, 성과 및 전망,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 수준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및 외화거래비용 절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 화폐발행이익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 추진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약 4조 달러)을 보유하고 있어 화폐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 외화 유입에 따라 증가한 유동성 회수를 위한 통화안정채권 발행 비용 등으로 막대한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요 투자처인 미국, EU의 금리차 확대에 의해 중국의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중 환차손 등을 제외한 이자손실만 연간 745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2013년 기준 중국의 GDP(9.5조 달러)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교역규모(4.2조 달러)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중국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적 위상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9년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점진적 규제 완화,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을 우선 추진

- 중국은 2009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2009년 7월 위안화결제 무역거래를 시범 시행한 이후 대상 기업, 지역,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부터는 위안화 무역결제 관련 규제를 철폐함.
- 또한, 2009년 위안화 예금결제 업무를 시범 시행(홍콩)한 이후 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 및 딴셴본드 발행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은행 앞 위안화 표시 회사채 인수증개업무 개방 등의 조치도 시행한 바 있음.



- 또한, 직거래 통화 확대,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 통화스왑협정 체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등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2014년 12월 1일 현재, 위안화와 직거래가 가능한 통화는 총 10개*이며, 대만과는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한 바 있음.
- * 2014년 12월 1일 우리나라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시장이 개설됨.

<표 1> 위안화 직거래 대상 통화 현황

통 화	거래개시시점	통 화	거래개시시점
미국 달러		뉴질랜드 달러	2014-03-19
말레이시아 링기트	2010-08-19	영국 파운드	2014-06-19
러시아 루블	2010-11-25	유로	2014-09-30
일본 엔	2012-06-01	싱가포르 달러	2014-10-27
호주 달러	2013-04-10	한국 원화	2014-12-01

자료: CFETS(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 또한, 2014년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대폭 확대하여 2014년 11월말 현재 13개 국가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되었으며, 28개국과 약 3.1조 위안에 육박하는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음.

<표 2> 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현황

지정연도	국가(지역)명	지정은행
2003	홍 콩	중국은행(BoC)
2004	마 카 오	중국은행(BoC)
2012	대 만	중국은행(BoC)
2013	싱 가 포 르	공상은행(ICBC)
2014	영 국	건설은행(CCB)
	독 일	중국은행(BoC)
	한 국	교통은행(BoCom)
	프 랑 스	중국은행(BoC)
	룩셈부르크	공상은행(ICBC)
	카 타 르	공상은행(ICBC)
	캐 나 다	공상은행(ICBC)
	말레이시아	중국은행(BoC)
	호 주	중국은행(BoC)

자료: 인민은행, 언론 보도 종합.



<표 3> 중국의 통화스왑협정 체결 현황

국가	체결시점	규모 (억 위안)	국가	체결시점	규모 (억 위안)
한국	2008.12	3,600	호주	2012.03	2,000
홍콩	2009.01	4,000	우크라이나	2012.06	150
말레이시아	2009.02	1,800	브라질	2013.03	1,900
벨라루스	2009.03	200	영국	2013.06	2,000
인도네시아	2009.03	1,000	헝가리	2013.09	100
아이슬란드	2010.06	35	알바니아	2013.09	20
싱가포르	2010.07	3,000	EU	2013.10	3,500
뉴질랜드	2011.04	250	아르헨티나	2014.07	700
우즈베키스탄	2011.04	7	스위스	2014.07	1,500
카자흐스탄	2011.06	70	몽골	2014.08	150
태국	2011.12	700	스리랑카	2014.09	100
파키스탄	2011.12	100	러시아	2014.10	1,500
아랍에미리트	2012.01	350	카타르	2014.11	350
터키	2012.02	100	캐나다	2014.11	2,000

자료: 인민은행, 언론 보도 종합.

- 다만, 자본 유출입에 따른 위험 통제를 위해 자국 금융시장 개방보다는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IMF의 분류를 참고하여 자본계정을 4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태환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출, 직접투자 등 14개 항목은 조건부태환, 채권·주식시장 거래 등 22개 항목은 부분태환이 가능하며, 4개 항목*은 태환이 불가능하여 전반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음.
- * 비거주자의 역내 증권, 금융상품, 파생상품 발행 등 3개 항목과 거주자의 역외 파생상품 발행
- 최근 인민대학교가 발간한 '2014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 자유태환(convertibility) 확보 전까지는 자본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 하면서 자본계정 자유화의 효과를 가지는 역외 위안화 시장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하였음.



II. 위안화 국제화의 성과 및 전망

□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은 급속히 강화되는 추세

- 전세계 국경간 지급결제(cross-border settlement, 무역과 자본거래 포괄)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0.3%(‘12.1)에서 1.7%(‘14.9)로 상승함에 따라 위안화가 세계 7위 결제통화로 부상하였음.
- 최근 위안화는 무역금융 부문(신용장 개설규모 기준)에서는 유로화를, 대 중국(홍콩 포함) 거래에서는 홍콩 달러를 제치고 제2위 결제 통화로 자리매김하였음.

<표 3> 주요 통화별 결제통화 비중

통화	국경간 지급결제(%)				무역금융(%)			
	‘12.1	순위	‘14.9	순위	‘12.1	순위	‘13.10	순위
미 달러화	29.7	2	42.9	1	85.0	1	81.1	1
유로화	44.0	1	29.4	2	7.9	2	6.6	3
파운드화	9.0	3	8.5	3	0.4	7	0.3	8
엔화	2.5	4	2.7	4	1.9	3	1.4	4
호주 달러화	1.8	6	2.0	5	0.2	9	-	-
캐나다 달러화	2.1	5	1.8	6	-	-	-	-
위안화	0.3	20	1.7	7	1.9	4	8.7	2

주: 무역금융의 경우, 10위 통화까지만 통계 제공.

자료: SWIFT, SWIFT RMB Tracker.

- 2014년 지역별 대중 거래(홍콩 포함)시 위안화 활용 비중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중남미(66%)와 중동(58%)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북미(3%)와 아프리카(9%)에서는 활용도가 낮음.
- 미 달러화와의 격차가 크며, 위안화 국제결제에서 홍콩의 비중이 73%로 높다는 한계가 있으나, 점차 역외 지역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음.
- SWIFT에 따르면, 홍콩과 중국을 거치지 않은 역외 위안화 거래액은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의 약진에 힘입어 최근 2년 사이에 8.4배 증가함.



□ 역외 위안화표시 예금액 및 채권 잔액 상승세, 외환보유액 편입국 증가 등으로 투자·보유 측면에서도 위안화 위상이 강화

- 역외 위안화 예금액은 약 1.5조 위안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타 지역의 예금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 홍콩의 위안화 예금액은 2010년 이후 급증하여 2014년 5월말 기준 예금 잔액이 9,558억 위안을 기록하였음.
 -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위안화 예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각각 2,927억 위안(2014. 6월말) 및 2,200억 위안(2014. 5월말)을 기록함.
 - * 위안화 예금액(조 위안): (홍콩) 0.1('10.1월) → 0.9('14.5월)
(대만) 0.04('13.2월) → 0.2('13.12월) → 0.3('14.6월)
- 역외 위안화표시 채권 잔액(CD 포함)은 2014년 6월말 현재 약 7,500억 위안으로, 홍콩의 덤섬본드 잔액이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덤섬본드 발행 규모는 3,660억 위안으로 2013년 연간 발행액(3,710억 위안)에 육박하였으며, 대만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힘입어 2013년 3월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발행이 허용된 이후 금년 6월 말까지 발행실적이 18개 기관, 141억 위안을 기록함.
 - 싱가포르의 라이온시티본드* 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에서도 위안화 표시 채권이 발행되고 있음.
 - * 2014년 4월말 현재 채권 발행 규모는 75억 위안 수준
- 위안화를 외환준비통화로 편입시키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IMF는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구성통화*로 위안화 편입을 검토하는 등 위안화 보유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 * 현재 미국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유로화 등 4개 통화로 구성
 -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인도, 몽골, 이란, 나이지리아, 케냐 외에도 최근 영국이 위안화를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였으며, ECB도 위안화 편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 영국은 지난 10월 14일, 3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하였으며, 조달한 자금은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점진적인 자본계정 개방 등에 힘입어 향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무역규모 확대, 주요국과의 위안화 청산결제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면,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비중은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들어 비아시아 국가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증점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외 위안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 Deutsche Bank는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따라 유럽-중국간 위안화 결제 규모가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HSBC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정책 의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실물경제적 위상 강화 등으로 2015년에는 위안화가 미 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 결제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거래편의를 위한 위안화 예금수요 증가, 중국 당국의 점진적인 자본계정 개방 등으로 투자 수요가 창출됨에 따라 향후 투자·보유 목적의 위안화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Standard Chartered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 역외 위안화 시장 이용 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겠다는 응답률이 꾸준히 상승함.
 - * 79%(‘13.3) → 88%(‘13.7) → 92%(‘13.10) → 94%(‘14.5)
- 현재 중국 당국이 규제하고 있는 금리와 환율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되고 자본시장도 2020년 전후로 개방되어 위안화의 자유로운 태환이 보장될 경우 투자통화로서의 위안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 정부는 2013년 공식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에서 금리와 환율 자율화, 위안화 자유태환 등 금융시장 관련 개혁 과제를 시범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점검한 이후 개혁 조치를 확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됨.



Ⅲ.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 현황과 시사점

□ 대금결제, 예금 및 채권 발행 등의 측면에서 위안화 활용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

- 대금결제시 위안화 사용액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입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은 2013년 기준 수출의 1.6%, 수입의 0.7%에 불과한 반면, 달러화 비중은 95% 수준에 달함.

* 위안화 사용규모(백만 달러): (수출) 33('09) → 812('11) → 2,294('13)
(수입) 48('09) → 176('11) → 545('13)

-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국내 기업이 달러 활용에 익숙하고, 위안화 포지션에 대한 환헤지가 어려우며, 위안화 여유자금의 투자처가 제한적인 점 등이 지목되고 있음.

- 국내 위안화 예금잔액이 2011년 0.8억 달러에서 2014년 10월말 217억 달러 (약 1,337억 위안)로 급성장하면서 위안화 비중도 0.3%에서 32.7%로 증가하였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위안화 예금 증가 요인으로는 위안화 예금의 고금리를 활용한 중국계 외국은행 지점의 적극적인 예금유치 영업, 홍콩 위안화 선물시장에서의 낮은 환율을 활용한 차익거래 등이 있음.

<표 4> 대중 교역시 결제통화별 비중 (%)

구분		2011	2012	2013
수출	미 달러화	96.9	96.7	95.3
	위안화	0.6	1.0	1.6
수입	미 달러화	94.1	94.8	94.9
	위안화	0.2	0.3	0.7

자료: 한국은행.

<표 5> 통화별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기말기준, 억 달러)

통화	2011	2012	2013	2014
미 달러화	245.0	296.8	359.0	384.4
위안화	0.8	1.7	66.7	217.0
유로화	23.1	34.0	19.5	24.7
엔화	22.2	19.5	26.0	25.4
기타	8.2	8.3	13.1	12.6
계	299.3	360.3	424.3	664.1

주: 2014년은 10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2억 위안, 2년 만기, 2014.10.10)한 데 이어 ICBC Asia도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1.8억 위안, 2년 만기, 2014.10.14)하였음.

□ 중국 경제와의 밀접한 관계, 역외 위안화금융 취급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활용 확대 가능성이 상존

-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하며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 관광객 유입 규모도 증가하는 등 양국간 인적, 경제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세계 8위 수준*(SWIFT, 2014.6월말, 홍콩 제외)인 우리나라의 위안화 결제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싱가포르, 영국, 미국, 대만, 프랑스, 호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상위권에 위치

- 2013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제 1위 교역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3위 교역 상대국(홍콩 제외)임. 또한, 양국은 2014년 11월 10일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어 향후 교역규모 확대가 예상됨.
-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투자대상국으로 투자금액은 2014년 9월말 현재 48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잠재적 위안화 수요가 높음.
- 중국 관광객이 2009년 134만 명에서 2013년 433만 명 수준까지 급증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위안화 수납이 확대되고 있음.

<표 6> 세계 10대 역외 위안화 거래국 현황

국가명	국가별 비중(%)				국가명	국가별 비중(%)			
	'13.6	순위	'14.6	순위		'13.6	순위	'14.6	순위
싱가포르	16.5	2	28.4	1	호주	3.4	7	4.8	6
영국	30.8	1	22.5	2	독일	3.4	8	2.5	7
미국	8.5	4	10.8	3	한국	1.0	15	2.4	8
대만	10.3	3	9.3	4	룩셈부르크	3.8	6	2.3	9
프랑스	8.1	5	5.4	5	말레이시아	2.2	9	2.1	10

주: 위안화 송금 및 수취액을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을 산정(중국, 홍콩 제외).

자료: SWIFT, SWIFT RMB Monthly Tracker- July 2014, 2014. 7.



- 통화스왑 체결, 위안화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청산은행 지정,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자격 부여 등으로 역외 금융시장으로서 필요한 인프라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양국 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은행에게도 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은행의 중국 채권, 주식 투자가 허용되어 위안화 여유자금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 제도 개요

- RQFII(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는, 해외금융기관이 자체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 본토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1년 12월 도입되었음.
- 증권감독위원회(CSRC)에서 결정한 국가별 한도 내에서 외환관리국(SAFE)이 기관별 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2014년 7월 우리나라에 800억 위안 한도를 추가 부여하여, 10월말 현재 6개국에 총 6,600억 위안을 부여

<국가별 RQFII 한도 부여 현황>

국가명	한도(억 위안)	국가명	한도(억 위안)
홍콩	2,700	프랑스	800
대만	1,000	한국	800
영국	800	싱가포르	500

- 해외적격기관투자자(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에 적용되는 환전, 자산분배에 대한 규제가 없어, 환전절차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
- QFII 하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자본시장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대상도 주식 비중이 50%를 상회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는 대중 상품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위안화 유동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임.

* 대중 무역흑자규모(억 달러): 453('10) → 478('11) → 535('12) → 628('13)



□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필요

- 위안화 국제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상되므로, 중국과의 긴밀한 인적·경제적 교류, 기확보된 역외 위안화 취급에 필요한 금융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위안화 거래·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무역금융 등의 분야에서 위안화 활용 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함.
- 정부는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및 환율 자율화시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 등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임영석(02-6255-5704)

yslim@koreaexim.go.kr



< 참 고 문 헌 >

이치훈, "중국, 4조달러 외환보유고의 허(虛)와 실(實)",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14. 8.

산업연구원, "중국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이슈 분석, 2014. 7.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Chen Yulu(통화정책위원), 위안화 3~5년내 3대 국제통화 부상 전망", China Weekly, 2014. 7.

조익연, 김진,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우리 금융부문에 대한 시사점", 금융경제분석,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 1.

한국금융연구원,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금융 VIP 시리즈, 2012-06, 2012. 5.

Deutsche Bank, *At the center of RMB internationalization - A brief guide to offshore RMB*, 2014. 3.

Standard Chartered, *Offshore Renminbi bonds - Outlook for 2014*, 2014. 5

SWIFT RMB Monthly tracker(http://www.swift.com/products_services/renminbi_reports)